제1편
총 론

제1장 자연환경

제1절 위치 및 면적

1. 위치(位置 : Location)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발전성은 위치가 매우 중요하며 그에 따른 자연환경의 조건 또한 매우 중요하다. 위치는 크게 조건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 위치(Site)와 주변의 여건에 맞추어 변하는 상대적 위치(Situation)로 살펴볼 수 있다. 절대적 위치는 크게 숫자로 이해되는 수리적 위치와 지리적 조건에 의해 이해되는 지리적 위치로 분류할 수 있다. 수리적 위치는 다시 경도와 위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지리적 위치는 섬, 반도, 내륙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상대적 위치는 관계적 위치 또는 지정학적(Geopolitical) 위치라고 할 수 있다. 상대적 위치는 주변의 상황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자신의 위치가 재정립되는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따라서 한 나라나 한 지역의 발전적 방향을 설정하고 견지하기 위해선 상대적 위치 즉 관계적 위치에 대한 끊임없는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림1-1 : 광양시의 상대적 위치

광양시는 한반도 남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전라남도의 동남부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광양시는 한반도 남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전라남도의 동남부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크게 분수계를 중심으로 영산강 유역, 섬진강유역, 남서해안 및 탐진강 유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예부터 영산강유역은 화강암 분지지역을 영산강이 가로지르면서 만들어 논 구릉성 침식평야와 영산강과 조수가 만들어 낸 충적평야가 넓게 발달하면서 일찍부터 농업의 발달과 높은 토지생산력으로 인한 인구부양력이 높은 지역이었다. 반면 변성암 지대의 구조선을 따라 흐르는 섬진강 유역에는 넓은 평야를 형성하지 못하고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분지를 중심으로 촌락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섬진강을 백운산 동편으로 끼고 도는 광양시 역시 넓은 평야지대는 아니다. 다만 남해를 바라보는 배산임해(背山臨海)의 산지와 그리고 산지 사이사이에 나타나는 곡저평야를 따라서, 남해 바다와 섬진강변을 따라

서 삶의 터전을 이어오면서 살아오는 고장이다. 하지만 해양입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한반도 남해안의 중앙부에 자리잡은 위치와 해양조건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서 급변해 가는 광양을 만들어 가는 주요 자연환경의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림1-2 : 전남의 지역구분과 광양시의 위치

1) 절대적 위치 (Site)

가. 수리적위치(數理的 位置)

여기서 말하는 위치는 수리적 위치로 경 · 위도상의 위치를 말한다. 경도상의 위치는 시간대를 의미하며, 위도상의 위치는 기후와 식생, 토양,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광양시의 수리적 위치를 보면 경도상 동경 127°47′ ~ 동경 127°31′ 으로 한반도의 중앙경선인 동경 127°30′ 에 근접한 위치에 해당한다. 한반도의 경도상의 위치가 동경 132° 에서 서경 124°이므로 127°30′ 이 본래의 우리나라 중앙경선이랄 수 있다. 이는 영국의 그리니치 파크의 그리니치 천

경도상의 위치는 시간대를 의미하며, 위도상의 위치는 기후와 식생, 토양, 농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문대를 지나는 본초자오선을 표준으로 하는 세계표준시(GMT)로부터 8시간 30분 정도 빠른 시간대에 속하는 위치이다(경도의 15°차는 시간으로 1시간 차이다). 하지만 현재의 우리나라의 표준자오선이 일본(코오베)을 지나는 동경 135° 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GMT보다는 9시간 빠르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와 일본은 시간이 같고, 중국은 우리보다 1시간이 늦으며, 영국은 우리보다 9시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는 우리보다 17시간이 늦은 곳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광양시는 우리나라 경선의 중앙부에 해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반면 기후환경과 밀접한 광양시의 위도상의 위치를 보면 북위 34° 53′에서 북위 35° 10′ 으로 북반구 중위도에 속한다. 중위도는 쾨펜의 세계기후대기후 구분에 따르면 온대기후(°C)에 속한다. 이런 온대기후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적합한 기후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 온대기후대에 분포하고 있고 세계문화와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후지역이다.

특히 광양시의 위도적 위치는 이런 온대기후대에 속하면서 연중 남해를 통과하는 쿠로시오(黑潮)난류인 동한난류의 영향으로 겨울철에도 매우 온화한 날씨를 가질 수 있는 절대적 위치가 되고 있다. 더구나 북쪽의 백운산이 차가운 북서풍을 감싸주면서 연중 0℃이상에 해당하는 난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기후의 특성으로 광양은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산업발달에도 유리한 환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치에 따른 기후의 특성으로 광양은 사람이 생활하기에 적합하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산업발달에도 유리한 환경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광양시의 경 · 위도상의 4극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다음 <표1-1>과 같다. 한반도는 동서보다 남북방향이 길어 동서의 차보다 항상 남북차가 잘 반영되듯이 광양도 남북차가 나타나며 지형에 따른 동서차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표 1-1〉 광양시와 우리나라(남한)의 경 · 위도상 4극

4극 \ 지명	지명 Name of Place	좌표 Coodinates	
		경도 Longitude	위도 Latitude
극동	광양시 진월면 오사리	127° 47′ 10″ E	35° 00′ 25″ N
Eastern extremly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	131° 52′ 20″ E	37° 14′ 15″ N
극서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127° 31′ 24″ E	35° 04′ 03″ N
Western extremly	경기도 옹진군 백령면 가을리	124° 36′ 45″ E	37° 58′ 05″ N
극남	광양시 금호동 지진도	127° 47′ 07″ E	34° 53′ 05″ N
Southern extremly	제주도 남제주군 대청읍 마라도	126° 16′ 35″ E	33° 06′ 25″ N
극북	광양시 다압면 하천리	127° 37′ 24″ E	35° 10′ 47″ N
Northern extremly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대강리	128° 21′ 15″ E	38° 36′ 45″ N

광양시와 위도상 비슷한 지역으로는 사천시, 순천시, 거제시, 요코하마, 로스앤젤레스, 카블, 키프로스 등이 해당되며, 경도상 비슷한 지역은 옥천, 음성, 원산 함흥, 오스트레일리아가 같은 경도에 위치한다. 광양의 경 · 위도상의 중심적 위치는 동경 127° 39′ 17″ , 북위 35° 04′ 16″ 에 해당하며 대략 진상면 황죽리 웅동마을 동남부에 해당한다. 광양시의 경 · 위도상 지구 반대편에 해당하는 대척점(對蹠點 : antipode)은 서경 52° 21′ , 남위 35° 04′로 남아메리카 남서부의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동남부 해상에 속한다. 이러한 경 · 위도상의 대척점은 시간차로 12시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밤낮이 반대가 되고, 남반구와 북반구의 차이 때문에 계절 또한 반대이다. 따라서 광양시가 낮이고, 여름이면 광양시의 대척점에 해당하는 우루과이는 반대로 밤이고 겨울이 되는 위치이다.

나. 지리적 위치(地理的 位置)

광양시의 지리적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남단 중앙부에 해당한다. 광양시는 반도나 섬에 속하지 않고 바다를 끼고 있는 해안지역에 있다. 특히 광양시의 해안은 항해가 가능한 수심과 갯벌 매립을 통한 간척이 모두 가능한 장점을 가진 해안지역이다.

이러한 장점은 내륙이 막히면 바다로, 바다가 막히면 내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점이적(漸移的) 잇점 지역으로 광양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저가 된다. 그런 점에서 광양만은 북쪽의 백운산이 가지는 육상교통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남해안에 최고의 항만조건을 가진 해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광양 컨테이너 부두와 세계 굴지의 광양제철소를 입지시킬 수 있는 최적지가 된 것이다. 아울러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인 유라시아 대륙과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보면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의 중심에 속한다. 광양시는 그런 한반도의 중심부의 남단 중심부에 속함으로써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의 한 중심부에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대륙의 영향과 해양의 영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이며 대륙의 진출과 해양의 진출이 모두 가능한 수송적환 지점에 위치이다. 따라서 동북아의 물류중심지의 허브(Hub)항으로써 기능과 역할을 소화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로 특히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CR)가 북한을 경유하여 광양과의 육로연결이 가능하게 되면 세계 최대의 대륙과

광양만은 북쪽의 백운산이 가지는 육상교통의 제한성을 극복할 수 있는 남해안에 최고의 항만조건을 가진 해안으로서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지인 광양 컨테이너 부두와 세계 굴지의 광양제철소를 입지시킬 수 있는 최적지가 된 것이다.

세계 최대의 해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적환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기후적, 문화적으로도 대륙의 영향과 해양의 영향을 고루 받을 수 있는 점이적 위치에 해당하며 항만의 위험요소인 태풍은 광양을 둘러싼 여수반도와 묘도섬의 병풍 및 방파제 구실로 더욱 천혜의 항만 조건을 가진 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위치의 잇점이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광양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으로 무한한 잠재력이 될 것이다.

3) 상대적 위치(Situation)

광양시는 산, 강, 바다가 모두 주변 지역과의 경계를 이루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는 한반도 남부 지방이면서 전라남도의 동남부에 속하고 있다. 동으로는 남해안으로 남류하는 섬진강을 경계로 하여 경상남도 하동군과 마주하고 있으며, 서로는 갈미봉~계족산~비봉산~능방산~반송재를 경계로 하여 순천시와 맞닿아 있다. 북으로는 한재~똬리봉~도솔봉~형제봉을 산줄기를 경계로 하여 구례군의 간전면과 마주하고 있다. 남으로는 광양만을 끼고서 여수시 묘도, 경남의 남해군 등과 마주하고 있다. 이처럼 광양시는 산, 강, 바다가 모두 주변 지역과의 경계를 이루는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다. 주변 도시와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도로망은 광주광역시와 부산광역시를 연결하는 호남 · 남해고속도로가 광양읍, 봉강면, 중마동, 옥곡면, 진월면을 통과하여 섬진강을 건너서 대진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어 남동연안의 주요 공업지역과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한 경전선이 통과하고 경전선에서 분기한 화물전용 광양제철선은 골약동과 금호동을 지나 컨테이너 및 철제품이 전라선을 통해 육지로 이동되고 있다. 거기에 여수 비행장과 사천비행장이 모두 30분 이내 거리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컨테이너항을 통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이 연결되어 있어 육상, 항공, 해상교통이 모두 최적의 접근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가 돋보이는 지역이다.

따라서 광양시가 동북아 경제권의 교역중심지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광양항의 기능을 확충하고 광양만권을 국제물류기지와 태평양전진기지로서 국제물류 및 자유무역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경제특구의 지정을 필요로 하고 있다.

2. 광양 지명의 유래와 의미

빛 광(光)과 볕 양(陽), 찬란한 햇빛과 따뜻한 햇볕을 동시에 의미하는 광양시의 광양이란 지명은 원래 통일신라 경덕왕 16년(757년)이전 까지는 마로현(馬老縣)으로 불리어졌고, 그 후에 희양현(晞陽縣)으로 개칭되었다가 고려 태조에 와서야 오늘날의 지명인 광양현(光陽縣)으로 바뀌게 되었다. 광양시를 지칭하였던 "우두머리"라는 뜻을 지닌 마로(馬老)라는 옛 지명과 함께, 햇볕이 잘 들어오는 온화한 기운을 나타내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희양(晞陽)이나 오늘날의 지명인 광양(光陽)은 모두가 지금의 광양시의 발전상이나 자연환경을 모두 예견한 듯한 감이 들 정도로 딱 들어맞는다. 어쩜 이 점을 통해서도 조상들의 지명에 대한 예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다.

광양시를 지칭하였던 옛 지명이 "우두머리"라는 뜻을 지닌 마로(馬老)라는 지명과 함께, 모두가 햇볕이 잘 들어오는 온화한 기운을 나타내주는 말의 의미를 가진 희양((晞陽)이나 오늘날의 지명인 광양(光陽)은 지금의 광양시의 발전상이나 자연환경을 모두 예견한 듯한 감이 들 정도로 딱 들어맞는다.

광양시는 백두대간의 끝 줄기인 백운산과 광양만을 에워싼 남해가 북산남해(北山南海)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이런 산수의 배치는 겨울의 찬 북서계절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병풍의 역할을 하고, 백운산 줄기를 넘어온 차가운 바람은 산을 넘으면서 기온이 올라가는 푄현상을 일으켜 더욱 온화한 기운을 가져다준다. 더구나 쿠로시오의 난류인 동한난류가 지나는 남해의 따뜻한 기운이 항상 더해짐으로써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광양시의 지명은 참으로 자연환경과 잘 어울리는 멋진 지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경제사회, 즉 쌀 생산량과 인구부양력이 일치하는 시대에서는 백운산 자락 계곡 사이에 비좁게 자리한 조그만 농경지를 가진 광양은 힘겨운 삶을 영위해야 했다. 다만 광양읍내 하구의 충적지와 수어천 하류 섬거리의 하구 충적지를 가진 일부지역이 조금 부양력이 풍부하여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인구가 밀집한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광양시의 배산임수(背山臨水)형국은 그래도 버섯, 나무, 과실수 등 임산물을 얻을 수 있는 산지의 잇점과 각종 수산물과 갯벌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산 양식물을 모두 취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어 부지런하면 삶을 그런대로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런 고을들은 특성이 대부분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길을 모색하기 마련이다. 어쩌면 광양에 가서 벼슬자랑하지 말라는 속어는 그 이면을 지적한 말인지도 모른다.

거기에다 광양은 한 때 전라남도의 동남단에 자리하고 있어 전라남도 중

심세력권인 광주시와의 원격성으로 도시세력권의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1년 금호도와 태인도 일대를 매립하여 세계적인 광양제철소를 짓기로 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이어 1998년에 21세기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서, 허브항(Hub Port)으로 역할이 기대되는 광양컨테이너항까지 개장하게 되면서 광양은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광양시는 1995년에 「도 · 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리되었던 동광양시와 광양군이 다시 하나로 통합되면서 문화와 생활권이 서로 일치되는 광양시로 출범하면서 햇살과 햇볕이 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제 시대는 농경사회가 아니다. 엄연히 산업사회이면서 삶의 질을 추구하는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을 모두 가진 시대가 되었다. 바로 광양의 햇살과 햇볕은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된 지역인지 모른다. 새롭게 찾아 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장 살기 바람직한 도시로 가꾸려는 의지가 필요할 때이다.

이처럼 과거의 삶을 지켜온 자연환경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생성시켜주는 자연환경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에는 좋고 나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이 가진 잠재력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이 중요한 것이다. 과거 유배지로서 쌀밥조차 먹기 힘들었던 제주도가 관광지의 대명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나 가난한 산골짜기 국가인 스위스가 관광과 금융, 국제회의, 정밀산업 등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기본적인 자연환경이 가진 잠재력을 인간이 이해하고 활용하면서 달라지게 된 것이다.

산지와 강 그리고 바다를 모두 갖춘 광양시의 자연적 환경은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진 천혜의 자연조건이며, 김양식을 하던 남해의 푸른 바다는 한반도 남해안의 중심적 위치로 태평양을 지향할 수 있는 해양적 조건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이다. 광양의 지역 발전과 한국의 발전의 초석으로서 비중이 증대되는 현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미래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광양의 지역 발전과 한국의 발전의 초석으로서 비중이 증대되는 현 광양시는 전라남도에서 가장 역동적인 발전의 변화를 겪고 있으며 미래의 발전에 대한 자신감으로 충만 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양시는 지명에서와 같이 남도의 푸근한 햇살과 햇볕이 고즈넉하게 내리 쬐던 고장에서 이제 온 나라 온 세계에 그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찬란한 빛과 영향을 지닐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잠재력이 무한하게 나타나도록 더욱 자연을 아끼고 지키려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3. 광양시 형태와 지세

광양시의 전체적인 형태가 마름모꼴로 남해를 향해 가는 배 모양이다. 남북 간의 길이는 31.5㎞, 동서의 폭은 약 12㎞이다. 형태를 보면 다압면 · 옥룡면 · 봉강면의 북쪽 경계를 잇는 북서변과 진월면과 중마동 · 골약동 봉화산줄기를 잇는 남동변이 마주하고 있는 마름모꼴이다. 가장 북쪽 끝 다압면의 하천리에서 내륙의 남쪽 끝인 골약동의 장길 나루가 남북의 장축이 되고, 봉강면 서쪽 끝 석사리에서 진월면 오사리를 동쪽으로 하는 동서 장축이 되는 형태이다.

한편으로 북쪽에 자리한 백운산 정상 봉우리(해발고도 1,218m)를 중심으로 하여 남쪽 즉 광양만을 향해서 4개의 손가락을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 4개의 손가락, 즉 형제봉~갈미봉~계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와 도솔봉~읍내 내우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그리고 백운산의 가장 주맥이랄 수 있는 백운산~억불봉~국사봉~구봉화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끝으로 호남정맥의 끝자락으로 이어지는 매봉~쫓비산~불암산~국사봉~망덕산 산줄기가 광양만을 향하고 있다.

이 4개의 산줄기 사이사이로 3개의 계곡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 봉강면을 관통하는 조령천~광양서천이 그 하나이며, 옥룡면을 관통하는 동곡천~광양동천이 또 하나이다. 그리고 진상면을 관통하는 수어천과 옥곡면을 빠져나오는 옥곡천이 바다에서 합류하면서 하나의 물줄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광양 동쪽 바깥을 돌아 남류하는 섬진강은 다압면과 진월면을 따라 흐르면서 경상남도 하동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모양이다.

사진1-1 : 광양시 위성사진

이런 광양시의 마름모꼴 형태는 좋은 의미에서 배 모양과 비슷하다. 마치 앞뒤가 뾰족한 배가 바다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는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즉 대양을 헤쳐나가는 배 모양과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일설에 하포마을에서 장길나루터(장길이란 지명은 원래 '진지 끝'이란 말이고 진지 끝이란 말은 긴 길의 끝이란 뜻이다. 광양사투리로 길다를 질다로 발음

한다. 이 말은 이후 일제의 지명정비에 의해 장길(長吉)로 표기되었다.)에 이르는 언덕 모양이 풍수지리적으로 '홍선출해(弘船出海)'의 형국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광양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아도 그런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향토의 생김새는 광양시의 제철업과 컨테이너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의미있게 설명하는 풀이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의 국토 형태를 두고 일제가 '토끼형태' 또는 '중국을 향해서 읍을 하는 노인' 형태로 국토 형태를 비하하면서 민족말살의 의미를 찾았다 한다. 하지만 최남선이 발행한 '소년' 이라는 잡지에서 '봉길의 지리공부' 라는 기사를 통해 최남선은 한반도를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상으로 표현하면서 국토애를 통해 일제에 맞선 것을 보면 향토의 형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행정구역

1) 면적

한반도의 면적은 약 22만㎢이다. 이 중 남한의 면적은 약 9.9만㎢이다. 이 면적에서 전라남도는 11,980㎢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광양시는 총면적이 446.08㎢로 전라남도에서 목포, 구례, 무안, 함평, 완도, 진도를 제외하고는 제일 작은 면적이다(2001년 기준). 광양시의 면적은 전 국토면적 99.862,74㎢의 0.44%를 차지하고, 전라남도 면적12,036㎢(2002년)의 3.7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라남도 22개 시·군 행정구역 중 16위에 해당된다.

면적(단위: ㎢)		
급간	시작	끝
1	2.8	365.82
2	365.82	728.84
3	728.84	1091.86
4	1091.86	1454.88
5	1454.88	1817.9
행정자치부[지적통계연보98]		

그림1-3 :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면적 비교

반면 인구는 2002년 광양시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138,468명으로 여수시, 순천시, 목포시 다

음으로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인구밀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으로 인해 510.4명/㎢이며 이는 여수시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치이다.

광양시 전체의 면적(446.08㎢) 중에서 가장 큰 읍 · 면 · 동은 옥룡면으로 66.36㎢이며 전체 면적에 대한 구성비는 14.9%이다. 그 뒤를 이어서 진상면이 65.52㎢로 구성비는 14.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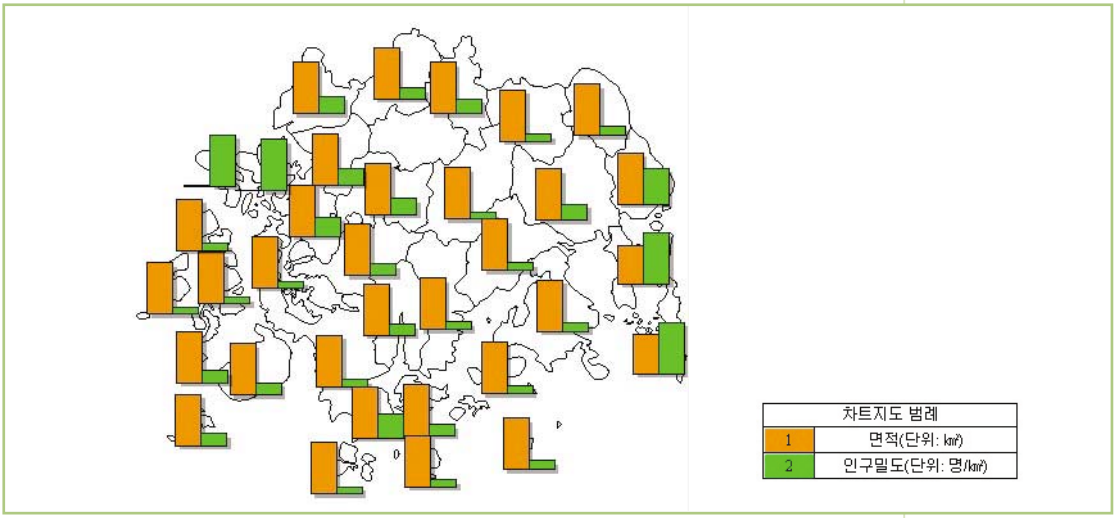


그림1-4 : 전라남도와 광양시의 면적과 인구밀도 비교

반면 가장 작은 읍 · 면 · 동은 광영동으로 면적이 3.23㎢이며 구성비는 0.7%이다. 다음으로는 태인동으로 5.88㎢이며 구성비는 1.3%를 차지한다.

다음 표는 2002년 광양통계연보 기준으로 본 각 읍 · 면 · 동의 면적과 구성비이다.

〈표 1-2〉 광양시 읍면동 면적 구성비 (2002 광양시청)

읍면동별	면적(㎢)	구성비(%)
전체(2001년)	446. 08	100
광양읍	52. 28	11.7
봉강면	55. 56	12.5
옥룡면	66. 36	14.9
옥곡면	40. 26	9.0
진상면	65. 52	14.7
진월면	37. 13	8.3
다압면	63. 63	14.3
골약동	30. 42	6.8
중마동	9. 05	2.0
광영동	3. 23	0.7
태인동	5. 98	1.3
금호동	16. 76	3.8

2) 행정 구역과 변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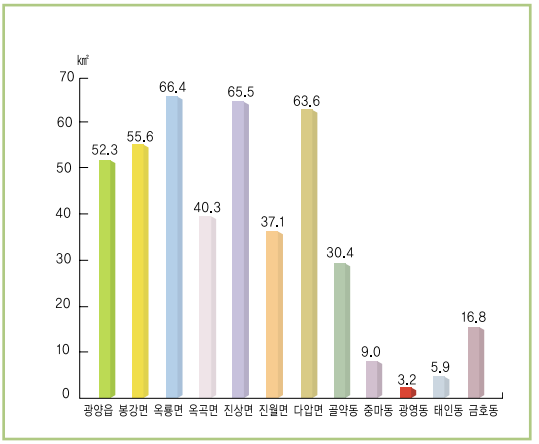


그림1-5 : 광양시 행정구역도
그림1-6 : 행정구역별 면적 비교- 2002통계연보

광양시의 행정구역은 2002년 현재 1읍 6면 5행정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양시는 고려 태조 23년(940년)에 희양현을 광양현으로 고쳐 승평군의 일부가 되었다가 1895년(고종32년) 5월 1일 전국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를 도입하면서 광양현을 광양군으로 고쳐 부르면서 남원부의 소속이 되었다. 1896년 2월 3일(건양1년) 칙령 제13호에 의해 돌산군이 신설되면서 광양군에 속했던 여러 도서(태인도, 금도, 길도, 묘도, 비운도, 삼간도, 송도, 늑도, 장도, 배알도, 중도 등)를 돌산군으로 넘어가 돌산군 북면이 되었다가 1899년에 북면은 태인면으로 개칭되었다. 1896년 8월 4일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광양군은 전라남도 광양군이 되었다. 1912년에 광양은 우장면 성내리에 군청을 두고 우장, 사곡, 골약, 진상, 진하, 월포, 다압, 칠성, 인덕, 봉강, 옥룡면의 12면 226리를 관할하는 군이 되었다. 1914년 3월 1일 순천군 서면 계동리 일부가 광양군 봉강면 석사리로 편입되었고, 반대로 인덕면 동지리 일부는 순천군 해룡면 복성리에 편입시켰으며, 순천군 해룡면 지봉리 일부를 광양군 인덕면 덕례리에 편입하고 순천군 해룡면 산두리 일부를 광양군 인덕면 세풍리에 편입하였다. 또 돌산군 태인면의 여러 섬(길도, 소늑도, 늑도, 장도, 송도, 삼화도, 비운도, 금도 등)을 광양군 골약면으로 하면서, 태인면 용지리, 도촌리를 골약면 태인리로 변경하였다. 하지만 묘도는 여수군 삼일면으로 남게 되었다.

1914년 4월 1일 광양은 9면 70리를 관할하면서 군청은 광양면 읍내리에 두었고, 진하면과 월포면을 합하여 진월면으로 통합하였다. 1915년 1월

1896년 8월 4일 전국 23부제가 폐지되고 광양군은 전라남도 광양군이 되었다.

1일 다압면의 섬진리 일부(두치진)가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만지마을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다압면 도사리에 남게되었다. 1925년 4월 1일에 인덕면이 광양면으로 통합되면서 8개 면이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인 1949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의하여 광양면이 광양읍으로 승격되어 1읍 7개 면이 되었다.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에 의하여 골약면의 송장리가 여천군 율촌면으로 속하게 되었고 1974년 11월 1일 광양군 조례 제374호에 의하여 골약면의 태인리, 금호리를 분리하고 광양군 태인출장소를 설치하여 1읍 7면 1출장소를 유지하였다.

1983년 1월 10일 대통령령 제 11027호로 태인출장소가 태금면으로 승격하면서 광양은 1읍 8면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옥룡면 운곡리 일부가 광양읍 우산리로, 진월면 진정리 일부가 진상면 청암리로 편입되고 1986년 1월 1일 전라남도 조례 제1554호에 의하여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가 개소되면서 골약면 · 태금면 · 옥곡면 · 광영리를 관할하게 되었다.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의거하여 승주군 해룡면 복성리 일부가 광양읍 덕례리 주령마을로 편입되었고 봉강면 지곡리 일부(보은과 우두)는 광양읍 구산리 신기마을로 편입, 광양출장소 옥곡면 광영리가 동출장소 골약면에 편입, 여천시 묘도동 일부(지진도)가 광양지구출장소 태금면에 편입되었다. 1989년 1월 1일 전라남도 광양지구출장소가 동광양시로 승격하면서 7개 행정동(황금동, 상황동, 중마동, 광영동, 금호동, 금당동, 태인동)과 10개 법정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광양시를 설치하면서 광양시 중동에 시청사(市廳舍)를 입지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1995년 1월 1일에 동광양시와 광양군을 폐지하고 도농복합형태의 광양시를 설치하면서 광양시 중동에 시청사(市廳舍)를 입지시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표 1-3〉 광양시 행정구역 현황-2002통계연보 재작성

읍면동별	면적(㎢)	인구(명)	읍	면	동		통	리		반	자연부락
					행정	법정		행정	법정		
전체(2001년)	446. 08	138,468	1	6	5	10	94	182	59	1,016	270
광양읍	52. 28	40,701	1					54	15	245	66
봉강면	55. 56	2,726		1				18	7	23	24
옥룡면	66. 36	3,754		1				23	8	36	35
옥곡면	40. 26	4,912		1				18	7	35	36
진상면	65. 52	4,344		1				22	7	38	29
진월면	37. 13	4,726		1				31	10	40	31
다압면	63. 63	2,349		1				16	5	18	18
골약동	30. 42	3,031			1	5	17			26	19
중마동	9. 05	33,534			1	2	29			169	3
광영동	3. 23	15,053			1	1	20			93	4
태인동	5. 88	3,477			1	1	10			22	5
금호동	16. 76	19,861			1	1	18			271	

3) 행정구역별 특성

광양은 과거 크게 행정구역의 경계와 관계없이 광양 내면지역과 광양 외면지역으로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었다. 서쪽의 광양읍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으로 광양읍내, 봉강면 · 옥룡면, 그리고 배나무재와 고삽치-송치재를 넘어 다녔던 골약면(현골약동, 중마동)이 이에 속했다. 반면 광양 진상면 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에 옥곡면 · 진상면 · 진월면 · 다압면이 이에 속했다. 다만 다압면은 배봉~갈미봉~쫓비산~불암산~국사봉의 호남정맥 끝자락 연봉이 장벽처럼 막아진 다압면은 구례와 하동의 생활권과 훨씬 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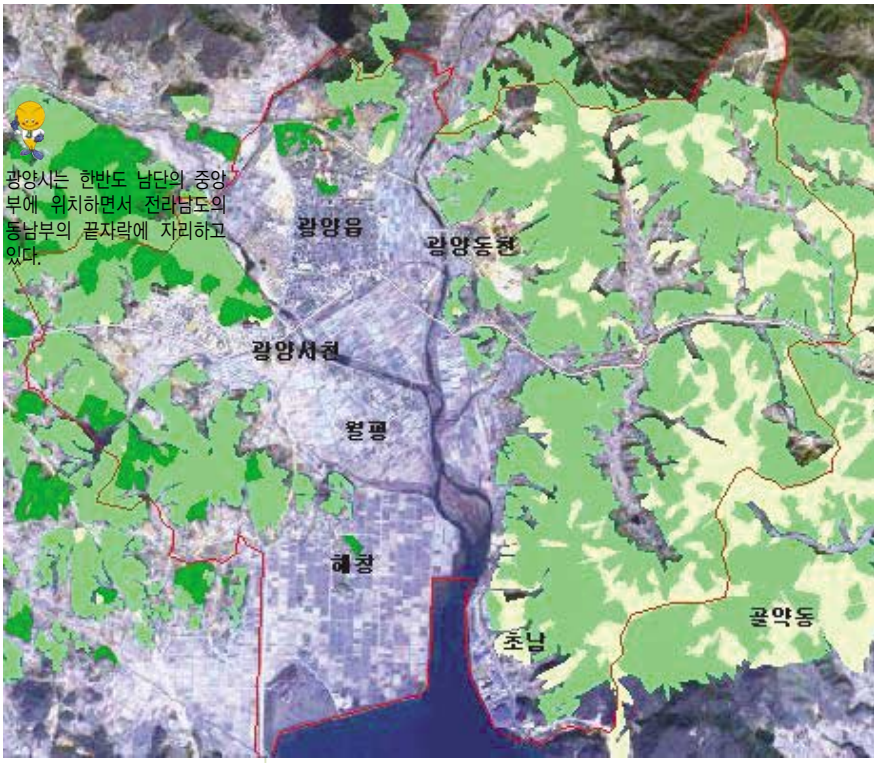
광양시의 남단 중앙부에 위치한 중마동은 원래 골약면에 속했으나 현재는 광양시청이 자리잡고 있는 광양시의 중추지역이다. 중마동은 북쪽의 해발고도 497m의 가야산을 주산으로 하여 옥곡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광양만을 바라보고 있는 가야산 산록면을 좌우 날개로 삼고 그 중앙부의 산록면을 깎아서 만든 격자형의 신시가지로 배산임해형이다. 시의 남동부의 해안지대는 북동-남서 방향의 유조선이 통과하는 곳으로 수심이 깊은 편이다. 하지만 옛 바닷가 모습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간척화되고 항만시설과 도시화로 변해가고 있다. 원래 국도 2호선이 가야산의 북쪽 옥곡면으로 지나갔으나 중마동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주변지역과의 접근성이 한층 증대

되었다. 이곳은 광양에서 가장 변화가 많은 지역으로 산지 북서부의 산지를 기대어 남동부의 해안을 개발축으로 하여 발전하고 있는 광양시의 중추지역이다. 또한 이 지역은 도시계획에 따라 시가지와 도로망이 격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 신흥 도시지역이기도 하다.

반면 오랫동안 광양의 경제적 문화적 중심지로서 역할을 해온 광양읍은 시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시의 북쪽 중앙에 자라목처럼 튀어나온 우산(牛山)은 백운산의 줄기의 하나로 봉강에서 내려오는 광양 서천과 옥룡에서 내려오는 광양 동천을 사이에 두고 있다. 읍내는 이 우산을 깃점으로 양 하천이 합류하는 보호사면에 자리하고 있다. 합류한 하천은 광양만을 빠져나가며 하구 양안에 넓은 갯벌을 발달시키면서 이를 중심으로 인공제방이 축조되고 이 간척지를 개간하여 논과 비닐하우스와 같은 근교 농업지로 이용되고 있다. 읍의 동쪽은 골약동과 옥곡면, 서쪽은 반송재를 사이에 두고 순천시와, 북쪽은 옥룡면과 봉강면이 인접하고 있다. 남쪽은 광양 서천과 동천이 합류하면서 하구를 빠져나가는 곳이다.

사진 1-2 : 광양시의 시청 소재지 중마동 일대-산지는 노란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개발된 시가지가 위성영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성사진으로 관찰하면 광양읍은 해발고도 1,218m의 높은 백운산이 바로 뒤쪽에 자리잡고 있어 습기가 발달한 여름의 남서기류가 부딪치는 경우 백운산 남사면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많다. 이에 따른 옥룡과 봉강의 계곡의 계류가 크게 범람하기 쉬우며 해안까지가 급사면으로 유속이 빠르게 증가하고 거기에 만조시 하구의 바닷물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광양읍을 중심으로 빠져나가는 양 하천의 범람으로 하류지역이 크게 피해를 입을 수



광양시는 한반도 남단의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전라남도의 동남부의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1-3 : 광양읍의 산지와 시가지-광양만을 빠져나가는 곳 양안에 발달한 갯벌과 간척지가 잘 보인다

다압면은 시의 북동부로 백운산을 중심으로 북서-남동방향을 이루면서 남서류하는 섬진강을 따라 동부는 산지, 서부로는 강줄기 의 형태로 길게 늘어서 있다.

있기 때문에 저지대의 개발에는 매우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

다압면은 시의 북동부로 백운산을 중심으로 북서-남동방향을 이루면서 남서류하는 섬진강을 따라 동부는 산지, 서부로는 강줄기 의 형태로 길게 늘어서 있다. 다압면과 구례군의 간전면이 맞닿은 북서부의 하천에서 남동부의 돈박골까지 장축이 약 18.71km (직선거리)이고 동부 천황재에서 상관동 강가까지 단축이 1.75km가 되는 긴 사다리꼴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특히 다압의 북서쪽은 높은 산지로 가로 막혀 있고 섬진강 너머로는 지리산줄기가 높게 자리잡고 있는 협곡 형태를 보이고 그 사이를 섬진강이 빠져나가고 있다. 급사면의 산지가 많아 농경지가 협소하며 일조량도 부족하다. 최근 산지 개발(매화와 밤)에 따른 급사면의 식생피복이 유실될 경우 산사태의 위험과 그에 따른 계곡류의 범람 등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산지개발에 신중을 고려해야 한다. 섬진강을 경계로 동쪽은 주로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악양면(岳陽面), 하동읍과 인접하고 남쪽은 진상면, 북서쪽은 구례군의 간전면과 인접해 있다. 산세가 험준한 백운산을 끼고 있지만 섬진강을 따라 강변도로가 개설되면서 매화마을 등에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봉강면은 시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성불계곡에서 흐르는 봉강천(광양읍 서천 상류)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동쪽은 옥룡면, 서쪽은 순천시 황전면과 서면, 남쪽은 광양읍, 북서쪽은 구례군의 간전면과 면하고 있다. 면이 성불계곡을 중심으로 고도 600~700m의 백운산 지맥에 자리하면서 계곡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곡저평야에 인구가 밀집해 있다.

옥곡면은 국사봉 서쪽, 중마동 가야산 북쪽 너머에 위치하며 동쪽은 진상면과 진월면, 서쪽은 옥룡면과 광양읍, 남쪽은 골약동, 북쪽은 진상면에 인접하고 있다. 면의 대부분 지역이 200~600m의 산지로 수어천 하구에서 합류하는 옥곡천을 중심으로 양안에 협소한 경지를 중심으로 취락이 나타난다. 수어천 하구 합류지역에 간척화된 충적지가 비교적 넓게 나타나고 있다.

옥룡면은 시의 북서부로 광양읍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은 다압면 · 진상면 · 옥곡면이 위치하고 서쪽은 봉강면, 남쪽은 광양읍, 북쪽은 구례군의 간전면과 인접한다. 면의 북쪽에 백운산이 있고 백운산에서 발원하는 동곡천이 추산천과 합류하면서 남류하고 있다. 이 하천을 중심으로 양안의 곡저에 협소한 경지가 분포하고 이를 토대로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특히 계곡이 깊어 봄, 여름에 많은 관광객이 이 계곡을 찾고 있다.

진상면은 시의 중동부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면으로 동쪽은 진월면, 서쪽은 옥룡면, 남쪽은 옥곡면, 북쪽은 다압면과 인접한다. 주변의 산지가 고도가 700m이상의 험준한 산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백운산에서 가장 긴 수어천을 끼고 있다. 수어천은 댐 높이 67m, 저수면적 2800만㎥의 큰 수어댐이 하류 협곡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수어댐의 아래 면의 남부에는 조수가 만나는 하구역으로 갯벌을 기지로 한 큰 충적지를 양안에 발달시켜 놓았다.

진월면은 시의 서남부에 위치한다. 동쪽은 섬진강을 경계로 하동군과 이웃하고 서쪽은 진상면과 옥곡면, 남쪽은 태인동과 광양만, 북쪽은 다압면과 인접하고 있다. 면의 북쪽 중앙에 500여m의 국사봉이 자리잡고 있으며 수어천과 섬진강이 동서로 감싸고 있다. 이 하천 양안의 충적지를 중심으로 취락이 발달하고 있다. 남쪽은 호남정맥의 끝인 망덕산이 남해바다인 광양만에 맞닿아 있다.

골약동은 백운산의 가장 주맥인 억불봉~국사봉~구봉화산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면서 광양만을 바라보고 있다. 동쪽으로 이웃한 중마동과 북쪽은 옥곡면을 경계로 하고 있다. 구봉화산을 크게 나누어 그 동남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철소의 입지와 광양컨테이너항의 개장으로 광양시의 중요한 입지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해안을 감싸고 입지하고 있는 광양컨테이너부두와 개발 예정지는 광양시의 발전에 중요하다. 골약동은 묘도를 중심으로 상당한 수심(15m 내외)을 유지하는 수로를 가지고 있는데다 묘도의 천연 방파제 구실로 천혜의 항구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산지 외 대부분 지역은 급격한 개발로 인하여 옛 자취가 거의 찾아 볼 수

옥곡면은 국사봉 서쪽, 중마동 가야산 북쪽 너머에 위치하며 동쪽은 진상면과 진월면, 서쪽은 옥룡면과 광양읍, 남쪽은 골약동, 북쪽은 진상면에 인접한다.

옥룡면은 시의 북서부로 광양읍의 북부에 위치하고 있다.

진상면은 시의 중동부에 남북으로 길게 뻗은 면으로 동쪽은 진월면, 서쪽은 옥룡면, 남쪽은 옥곡면, 북쪽은 다압면과 인접한다.

진월면은 시의 서남부에 위치한다.

골약동은 백운산의 가장 주맥인 억불봉~국사봉~구봉화산 산줄기를 중심으로 동쪽에 위치하면서 광양만을 바라보고 있다.

금호동과 태인동은 과거 금호도, 금당도, 태인도를 중심으로 매립하여 광양제철소와 제철소 연관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매립지역의 동네이다.

없는 지역이다. 국사봉~봉화산줄기가 광양읍과 광양 신흥 개발지역을 연결하는데 상당한 장애를 주고 있지만 최근 4차선 연결도로가 뚫리면서 소통이 원활해지고 있다.

금호동과 태인동은 과거 금호도, 금당도, 태인도를 중심으로 매립하여 광양제철소와 제철소 연관단지가 자리잡고 있는 매립지역의 동네이다. 주로 김양식 등을 하던 연안지역은 섬진강과 수어천이 수많은 토사를 씻겨 내려오면서 하구에서 조수와 만나 퇴적해놓은 갯벌이 발달한 지역으로 지금은 옛 바닷가의 자취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해버린 대표적인 지역이다. 금호동과 금당도는 주로 광양제철소의 사택을 중심으로 개발되었으며 낙지형국의 명당이었던 태인도는 간척되면서 제철소의 연관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렇게 하천과 바다가 만나는 중간 수역에 발달한 섬이 간척화되면서 다른 내륙지역인 중마동, 진월면, 경상남도의 하동군과는 전부 교량으로 연결되어 있다. 다만 광영동은 금호동, 금당동, 태인동과 달리 육지 내륙으로 과거 옥곡면에 속하였고 수어천 하구의 서편에 자리잡은 신흥개발지역이다.

사진1- 4 : 낙지형국 섬이 완전 새모습으로 변한 태인동

사진1- 5 : 골약동 산지와 해안개발지역